

문학분야

- 일시 : 2014. 8. 1(금) 10:30~13:30
- 장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가의 집 세미나실2
- 심의위원 : 권지예, 김기택, 유홍준, 하웅백
(이남호 책임심의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4년도 문예진흥기금 및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국제교류사업 3차 문학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한국문학세계화사업’,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3차(기획형)’ 등 총 2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하였다. 2개 사업유형의 총 지원신청 건수는 13건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하였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일정 전에 미리 보내준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에서는 신청 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하여 지원심의대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논의를 마친 후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별로 평가표에 각각 채점을 하였고 채점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한국문학세계화사업>

한국문학세계화 사업은 총 12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2건을 선정하였다. ‘이란 테헤란대학교’사업의 경우, 지원신청자가 없었기에 다음 4차 공모를 통해 적합한 지원자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에 대한 심의는 신청자의 레지던스 참여 계획의 충실성 및 문학분야에서의 창작활동의 적극성 그리고 사업추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원유순 아동문학가는 아동문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북유럽 판타지 신화와 결합하여 우리 동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도하고자 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에 선정하게 되었다. 지원자들 중 가장 의욕적이고 준비가 철저하다고 판단되었던 최정례 시인은 문학적 성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현지에서의 의사소통능력이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뛰어나 해외 문인들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전의 해외프로그램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작품집 출간 등의 성과를 비추어 볼 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및 국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어 선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스웨덴 한국대사관 협력 레지던시' 사업에 문인 2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3차(기획형)>

문학분야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3차(기획형)' 사업의 인도 상암하우스 레지던시에는 총 1건이 신청되었다. 지원자의 열정은 높이 평가되었으나, 문학의 창작 실적이나 활동이 부족하고 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문학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지원자가 많지 않아 다음번 4차 공모를 통해 적격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

무대예술분야

- 일시 : 2014. 7. 24(화) ~ 8. 1(금)
- 장소 : 서면 심의
- 심의위원 : 백로라, 서재형, 송전, 정명주
(조광화 책임심의위원은 개인사정으로 불참)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투표권 공익사업적립금 국제교류사업 3차 연극(무대예술)분야 지원심의위원회는 '(토토)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3차(기획형)' 총 1개 유형의 사업을 신청 받아 심의 하였다. 총 지원신청 건수는 9건이었다.

심사과정은 4명의 연극(무대예술) 분야 심의위원들이 사무처에서 미리 보내준 지원자들의 사업계획서 및 참고서류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지원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심의위원회는 3배수의 지원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미국 뉴욕 무대음향 및 무대의상 레지던스 멘토들이 사무처에서 미리 보내준 지원자들의 서류를 검토하여 최종 2인을 선발하였다.

2. 종합 심의평

<(토토)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3차(기획형)>

신청자들이 무대 예술 레지던시 프로그램의 참여가 적합한 수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프로그램 참여 이후 개인의 발전과 현장으로 공적 환류가 고르게 예상되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신청자들의 무대예술분야 전문성, 참여 동기와 목적

의 명확성, 구체적인 활동계획, 향후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그리고 무대의상 레지던스 멘토 캐서린 주버와 무대음향 레지던스 멘토 스캇 레러의 작업에 대하여 신청자들이 얼마큼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지, 멘토들과의 작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고 구체적인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해외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이 신청자들의 예술적 안목과 개인적인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향후 한국 공연예술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심의를 진행하였다.

연극(무대예술)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